

사회구성원의 의식의 변화가 수해형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시대별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

李美淑 **

〈요지〉

본고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가 수해형식 「シテヤル」 「シテクレル」 「シテモラウ」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근·현대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말에서 최근까지를 3기로 나누어, 작가의 세대, 작품의 발표시기, 양 등을 고려하여, 각각 15작품을 선정하여 사용양상을 조사하였다. 富地(1975)에서는 이들 수해형식이 고대경어에서 근대경어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경어의 단순화를 보완하는 형태로 발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고는 그 이후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해형식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체 사용수 및 각 수해형식의 비중, 사용양상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중, 「シテヤル」는 사용수는 물론, 전체 비중이 현저히 줄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シテクレル」 역시, 전체 사용수는 줄고 있으나, 그러나 세 형식 중 가장 사용수가 많고, 비중도 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시점' 및 '방향성'이라는 문법적 기능과의 관련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시대별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シテモラウ」는 20세기 중반의 작품에서는 사용량 및 비중 모두 증가했으나 최근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シテヤル」의 사용량보다 많아지고 있고, 미약하지만 「させてもらう」 등에 있어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종래 다양한 수해형식이 선택 사용되던 것이 점점 단순화되고 있어, 구성원들의 경의의식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는 사회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첫 단계로 전체적 경향에 주목했지만, 앞으로 개별 예문 분석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그밖에 문법적 기능, 행위요구표현, 비수해용법, 이중수해용법 등에 대하여도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나, 논지와 역행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어교육에서 한국인학습자의 「シテヤル」의 남용이 지적되고 있는데, 본고에서의 분석결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덧붙여 「してさしあげる」는 1예에 지나지 않아, 일본어교육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상, 소규모의 조사이지만,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문법형식의 선택에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1보를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논문분야 : 社會言語學

키 워 드 : 社會構成員, 意識, 受惠形式(授受形式), 言語變化, 行爲要求表現

1. 연구 목적

言語는 人間이 살고 있는 社會・歷史的 背景과 그 文化의 영향을 받는다. B. Spolsky는 '시대와 사회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27-A00545)

**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어학·대조언어학

변화에 따른 인간의 의식 변화에 따라 언어도 변화한다¹⁾고 역설한 바 있다. 엄밀히 말하면, 언어의 변화란 社會構成員의 意識(價値觀)의 변화에 의해 사용이 빈번해지거나 소원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연구에서 언어의 변화는 주로 어휘레벨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문법형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없을까? 본고는 이를 「シテヤル」 「シテクレル」 「シテモラウ」²⁾ 등, 일본어의 수혜 형식에 주목하여 이를 밝히고자 한다. 참고로, 일본어에서 이들 ㅅ형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授受’, ‘恩惠’ ‘寄与’ 등으로, 한국어에서는 ‘수혜’, ‘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한국어로는 ‘수혜 형식’으로, 일본어로는 ‘授受形式’으로 부르기로 한다.

일본어에서는 다음 예 1)~3)와 같이, ‘太郎が花子に本を貸す’라는 命題를 표현하는데 있어, 話者の 視點이 動作主에 있는지 受惠者에 있는지, 主語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3종의 형식이 선택·사용된다.

- 1) 太郎は花子に本を貸してやった。(주어: 太郎, 화자의 시점: 太郎)
- 2) 太郎は花子に本を貸してくれた。(주어: 太郎, 화자의 시점: 花子)
- 3) 花子は太郎に本を貸してもらった。(주어: 花子, 화자의 시점: 花子)

이들은 수급관계는 물론, 종립적 모달리티(Modality)를 갖는 「スル」와 ‘수혜’라는 측면에서 대립하며, 内外, 親疎, 場面 등의 요소에 의해 선택 사용된다. 특히 일본어의 수혜형식은 ‘敬意’라는 면에서 각각, 「してやる」 「してあげる」 「してさしあげる」, 「してくれる」 「してくださる」 「お(ご)~くださる」, 「してもらう」 「していただく」 「お(ご)~いただく」 등의 형식을 갖는다. 그밖에 20세기 중반까지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しておやりになる(おあげになる)」 「しておあげする」, 「しておくれになる」, 「しておもらいになる」 「しておもらいする」 등을 포함하면, 다른 언어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표현형식을 가지고 있다.³⁾ 이들의 선택사용은 이른바 화자의 心的 態度, 즉 의식 및 가치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실리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사회구성원의 언어생활이 과연 이러한 체계를 얼마나 활용할지, 사용양상의 변화가 주목된다.

宮地(1975)에 의하면, 일본어의 수혜형식은 17세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문헌 등에 등장하기 시작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는 수급의 인식이 없었다고 한다. 古語에서는 복잡한 경어 등을 사용하여 상·하관계나 누가 누구에게 한 일인지를 나타낸 데 반해, 현대어에서는 수혜형식을 사용하여 경어의 단순화를 보완하였다는 것이다. 즉, 일본어의 수혜형식은 古代敬語에서 近代敬語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변화에 주목해보자.

일본어의 수혜형식은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에게 습득하기 어려운 학습항목이다. 3종의 대립을 구별하지 않는 母語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シテヤル」와 「シテクレル」의 혼동이 가장 큰 문제이나, 다음과 같이 한국어의 「シテヤル」의 濫用⁴⁾ 및 「シテクレル」 등의 未使用으로 인한 誤用이 많다.

1) Bernard. Spolsky(1998), 『사회언어학』 김재원의 역(2001)참조

2) 본고에서는 「シテヤル」와 같은 가타카나표기를 「してやる」 「してあげる」 「してさしあげる」는 물론, 「しておやりになる」 「しておあげする」 형 등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シテクレル」 「シテモラウ」도 이에 준한다.

3) 요구모달리티형식인 「してちょうだい」 등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다룬다. 단, 「明日の朝、寄って」의 「寄って」와 같이 「して」형은 수혜형식의 생략으로 볼 수 있지만, 의미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これから話して上げます(→お話しします)。(한국인학습자의 오용예)
 5) 母は専業主婦です。いつも料理を作ります(→作ってくれます)。(한국인학습자의 오용예)

따라서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들의 현 시점에서의 사용양상에 주목하여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일본어의 흐름 속에서 '일본어교육도 더 이상 교실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언어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運用되는지를 알고 학습자가 그 안에 編入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는 佐々木(2005)의 지적은 본 연구의 동기중의 하나이다.

이상, 본고는 일본어의 수해를 나타내는 문법형식 「シテヤル・シテケレル・シテモラウ」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가 '수해형식'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2. 연구의 타당성 및 가설

언어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는, 時代에 따른 언어변화를 다룬 通時的(Diachronic) 연구와 현시점에서 각 世代⁵⁾에 초점을 맞춘 共時的(Synchronic)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시도로, 편의상 근·현대소설⁶⁾을 대상으로, 이들이 등장한 시기인 19세기말에서 현재까지를 세단계로 구분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가 문법형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 다음과 같이, 「シテクル・シテイク」의 다양한 용법 중,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목해 보자.

- 6) A: すごい雨だね。川の水は?
 B: だんだん(増えてくる / 増えていく)よ。 (작례)

小泉(1993)에서는 「シテクル」나 「シテイク」가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シテクル」는 事態에 대한 화자의 主觀的 긴박성이 느껴지지만, 「シテイク」는 客觀的 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6)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달려있으며, 양쪽모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シテクル」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관적인 감정이입을 통해 표현할 것인지, 「シテイク」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객관적인 묘사를 할 것인지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영역으로, 시대에 따른 의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한국어의 '말씀 드리다'라는 겸양어를 수해형식의 겸양어인 「してあげる」를 잘못 사용하여 표현하는 데서 오는 오용이다. 堀口(1984)에서도 한국인은 「してあげる」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5) 본고에서 '세대'라는 개념은 中井(2005)의 다음의 정의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적 체험을 함께하고, 공통의 정신세계를 가지며, 유사한 사회행동양식을 취하는 경향이 강한 시대적 집단(필지역)'
 6) 소설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통시적인 연구의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택하되, 최대한의 간격을 벌려 작가의 출생 시기 및 발표시기, 양 등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시나리오는 19세기말의 작품을 구하기 어려웠고, 신문의 독자투고란은 60년대에 이르러 정립되어, 소설과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함께 사용하지 함께 못하였음을 밝힌다.

다음 <표1>은 즐고(2007)에서 ㉔1940년 이전에 출생한 작가의 1960년 이전의 작품과 이와 약 30년 정도의 차이를 두어 ㉕1960년 이후에 출생한 작가의 1990년 이후의 작품에서 '변화'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シテクル・シテイク」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각각 10권으로 한정하고 자료의 분량을 통일하기 위해 편의상 권당 200쪽으로 제한하였다)

<표1> '변화'를 나타내는 「シテクル・シテイク」의 용례수

	シテクル	シテイク	계
㉔1940년 이전에 출생한 작가의 작품군	240(79.7%)	61(20.3%)	301(100%)
㉕1960년 이후에 출생한 작가의 작품군	179(61.1%)	114(38.9%)	293(100%)

<표1>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シテクル」와 「シテイク」의 전체 사용량은 ㉔301회, ㉕293회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シテクル」가 ㉔에서 240개 사용되던 것이 ㉕에서는 179회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수적 감소가 아니라, 전체 양을 100으로 보았을 때, 「シテクル」의 사용량은 79.7에서 61.1로 감소한 반면, 「シテイク」는 20.3에서 38.8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작가의 작품 군에서 「シテイク」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규모의 조사이지만, 불과 20~50년의 기간 동안,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문법형식의 선택에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단, <표1>에서는 無標形式 「スル」를 고려하지 못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반영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假說에서 출발한다.

- ① 문법형식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 ② 시대를 세분화하고 조사대상을 늘린다면 시대별 推移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シテタル・シテクレル・シテモラウ」보다는 무표형식 「スル」를 사용하여 '수혜'를 표현하지 않고 '中立的'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3. 선행연구 및 문제점

일본어의 수혜형식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일본어의 수혜형식의 특징 및 객관적 특징을 분석한 久野(1978), 奥津(1979, 1983)와 언어학적 접근으로 문법적 의미와 기능을 정리한 山田(2004)를 출발점으로 한다. 담화적 기능을 다룬 山橋(1999), 山本(2002)도 연구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宮地(1975)에서 다룬 수혜표현의 史的 意義에 대한 지적은 본고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밖에 수혜표현의 학습상의 어려움이나 오용에 관해서는 堀口(1984), 尹(2006)을 참조하였다.

한국어와의 대조연구도 활발하여, 林(1980), 奥津(1983), 黃(1996), 韓(2008)등의 논문을 통해, 어느 정도 全貌가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일본어의 수혜형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어의 보조동사를 총체적으로 다룬 손(1993), 강(1998), 김(1998)등을 참고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일본어의 수혜형식이

‘수해’라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형식으로서의 성격이 확고함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성과에서 출발하되, 논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출발하고자 한다.

3.1. 수해형식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일본어의 수해형식은 다음과 같이 수급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도 ‘수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7) 子供を切めて一人だけ私にくれてくれないかと私言ったのよ。(仮, 1기) 7)

그러나 수해형식에서 ‘수해’라는 문법적 의미와 더불어 수급관계와 관련된 화자의 ‘視點’ 및 화자를 기준으로 하는 ‘方向性’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문법적 기능으로 인해 수해형식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의식의 변화와 수해표현의 사용변화와의 관련을 연구하는 본고의 논지는 위태로워진다.

다음과 같이 앞의 1장의 예 1)~3)에서 수해형식을 제거할 경우, 8)과 같은 문이 성립한다. 8)은 ‘수해’라는 의미와 더불어 화자의 ‘시점’ 및 ‘방향성’이 사라지지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8) 太郎は花子に本を貸した。(○)

그렇다면 8)에서 동작의 수해자를 제3자(花子)가 아닌 화자 자신(1인칭)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9)와 같이,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문이 되므로, ‘太郎は私に本を貸してくれた’와 같이 「シテクレル」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9) 太郎は私に本を貸した。(△)

‘貸す, 教える, 見せる, 励ます, はらう’와 같이, 의미적으로 對人關係를 전제로 한 행위에서, 동작을 받는 자가 화자 자신인 경우,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해형식이 요구된다. 8) 이 점은 ‘방향성’이라는 문법적기능이 ‘수해’라는 의미보다 우선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남긴다. 즉, 동작주가 주어이고 수해자가 1인칭인 경우에는 문법적 기능으로 인해 「してくれる」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별도로 하여 조사하였으나, 시기별로 비율상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사용수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단, 10)~12)의 밑줄 친 부분을 「スル」형, 즉 ‘教える’ ‘はらうのだろうか’ ‘見せた’으로 바꾸었을 때의 문법적 허용도에 대하여는 일본인 모어화자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표본적으로 10명의 일본인 대학생에게 확인한 결과, 「スル」형으로도 문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답이 10)에서는 없지만,

7) 〈표2〉 참조. 책 제목을 약기하고, 시대구분을 표기한다.

8) ‘に’격 명사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シテクレル」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이 경우에는 「シテヤル」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예를 따로 통계를 냈으나, 시대별로 유사했다.

11)에서 3명, 12)는 10명 모두 허용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차는 물론, 세대차가 클 것으로 유추된다. 9)의 문법적 허용도를 ‘△’라 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본고에서는 그 가능성만 제시하고자 한다.

- 10) 「ちゃ、お姉ちゃんが教へて呉れるといいな。」(人, I기)
 11) アルバイトの報酬はやはり、はらってくれるのだろうか。(他, II기)
 12) 彼女は私にかばんを見せてくれた。(冷, III기)

3.2. 수혜형식이 행위요구표현에 사용된 경우

일본어에서는 「シテクレル」라는 수혜형식이 「してくれ」「してください」와 같이, ‘의뢰’ 및 ‘명령’이라는 행위요구표현의 모달리티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 할 지라도, 이들이 명령을 완화하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대상에 포함시킨다.

- 13) 「禁直ぐ来てくれ」(人, I기)
 14) 「ひょっと貴邦にご迷惑が掛ると悪いから早く帰って下さい」(人, I기)

다만, 동일한 형식의 경우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수혜의 의미, 경의 의식이 약화 및 소멸현상에 주목하고, 세 형식간의 비교를 위하여, 총 사용수와 더불어 별도로 이들을 제외하고 통계를 내기로 한다(5-1참조).

3.3. 비수혜형식의 처리에 대하여

일본어의 수혜형식은 순수하게 ‘수혜’라는 의미보다는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됨을 逆說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이, 「シテヤル」의 경우에는 화자의 ‘도발적 의지’⁹⁾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シテモラウ」「シテクレル」의 경우에는 ‘야유’ 및 ‘민폐’ 등을 나타내는 예가 있다.

- 15) 「陰謀ね。だったらビデオにでも撮って、証拠を突きつければ」
 「(中略)ビデオに撮って見せてやる」(空, III기): ‘도발적 의지’
 16) 「よお、ねえさん、さっきはやってくれたよなあ」(空, III기): ‘야유’ ‘민폐’
 17) 「先生、なめてもらったら困りますよ」(空, III기): ‘야유’ ‘민폐’

山田(2004)에서는 이들 비수혜적 용법을 단지 의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의지, 명령 및 無意志的 事態의

9) 山本(2002)에서의 용어임.

意志的 事態化'라는 모달리티적 의미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비수해용법'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들 용법 또한 '수해'라는 의미가 기본으로, 이를 逆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들 형식을 수해형식에 포함시켜 다루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단,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대별로 사용빈도를 분석한다.

3.4. 二重으로 수해형식을 사용한 경우

일본어의 수해형식은 다음과 같이,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타 언어와 구별되는 일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 일본어의 수해형식의 심세함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는 편의상, 수해의 빈도를 복수로 계산하기로 하되, 시대적인 변화에 주목한다.

18) そして今夜或男に一寸顔を見せてやってくれ、近くの洋食屋へ来るはずだから、(人, I기)

그밖에, 소설의 회화문과 지문에서의 사용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별도로 통계를 내어 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시대별 분포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안고, 각 시대별로 수해형식의 사용빈도, 시대적 경의표현의 바리에이션(variation)을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시대별 문학작품에 나타난 수해표현의 사용실태를 제시한다.

4. 시대별 문학작품에 나타난 수해표현 사용실태

먼저, 문학작품의 경우, 19세기말에서 최근까지의 근·현대소설을 최대한의 간격을 두고 3기로 구분하였다. 시대별로 출생 시기를 고려하여 대표성을 띠는 作家를 선정하고, 작품 중 發表年度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각 15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量을 통일하기 위해 문고판을 사용하여, 권당 100쪽으로 한정하였다.¹⁰⁾ 시대별로 15작품으로 한정된 점에 대하여 대표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제1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 I기 : 1900년 전후에 출생한 작가에 의한 1930년 전후 발표작
- Ⅱ기 : 1930년 전후에 출생한 작가에 의한 1960년 전후 발표작
- Ⅲ기 :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작가에 의한 2000년 이후 발표작

단, 작가의 性別은 I기에 선정된 작가가 시대적인 배경 등으로 남성작가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Ⅱ, Ⅲ기의 작품도 가능한 한 이에 준하였다. 선정 작품은 다음 (표2)와 같다.

10) 각 작품에 따라서 수해형식의 사용양상은 달라질 것이지만, 임의로 선정된 45작품 속에서의 통계도 전체를 유추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대단위의 연구를 기대한다.

〈표2〉 조사대상으로 한 시대별 문학작품¹¹⁾

	I기				II기				III기			
	작가	출생	작품	발표	작가	출생	작품	발표	작가	출생	작품	발표
1	永井荷風	1879	あめりか物語	1908	原田康子	1928	挽歌	1955	宮部みゆき	1960	火車	2007
2	谷崎潤一郎	1886	痴人の愛	1924	佐野洋	1928	未亡記事	1961	糸山秋子	1966	海の仙人	2004
3	正宗白鳥	1879	人江のほとり	1915	曾野綾子	1931	春の飛行	1957	辻仁成	1958	冷静と情熱の間	2001
4	森鷗外	1862	山椒大夫	1937	安部公房	1924	他人の顔	1964	片山恭一	1959	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2001
5	徳田秋声	1871	仮装人物	1935	三島由紀夫	1925	金閣寺	1958	東野圭吾	1958	手紙	2006
6	葉山嘉樹	1894	海に生きる人々	1933	森遙子	1940	彼と彼女	1987	鈴木清剛	1970	ロックンロールミシン	2002
7	堀辰雄	1904	菜穂子	1941	大江健三郎	1935	死者の奢り	1957	小川勝己	1965	彼岸の奴隷	2003
8	尾崎紅葉	1868	今色夜叉	1897	柴田翔	1935	贈る言葉	1966	飯島夏樹	1966	天国で君に逢えたら	2004
9	小林多喜二	1903	蟹工船	1929	清水一行	1931	廃虚集団		金原ひとみ	1983	蛇にピアス	2003
10	武者小路実篤	1885	友情	1920	深沢七郎	1914	楯山節子	1956	奥田英郎	1959	空中ブランコ	2004
11	中河与一	1897	天の夕顔	1938	森村誠一	1933	歪んだ空白	1988	金城一紀	1968	Go	2000
12	樋口一葉	1872	にごりえ	1895	黒岩重吾	1924	象牙の穴	1972	水野敬也	1978	雨の日も晴れ男	2005
13	小杉天外	1865	初すがた	1933	星新一	1926	ボッコちゃん	1958	福井晴敏	1968	川の深さは	2000
14	鈴木三重吉	1882	桑の実	1914	瀬戸内晴実	1922	再会	1989	福田靖	1962	Hero	2001
15	井伏鱒二	1898	山椒魚	1930	遠藤周作	1923	海と毒薬	1958	よしもとばなな	1963	なんくるない	2004

(본문에서 작품의 예문출전은 밑줄 친 부분으로 略記한다)

다음 장에서는 시대별로 사용된 수혜형식을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의 편의상, 5장에서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4.1. I기 (1900년 전후에 출생한 작가에 의한 작품)

다음은 1900년 전후에 출생한 작가 15명의 1930년 전후에 발표한 작품에서 수혜표현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표3〉 I기의 수혜형식 사용실태

11) 新潮社, 角川書店, 集英社の 문고판을 사용하였다. 발표년도는 가능한 한 조판 년도를 기입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계	계
		あ	痴	人	山	仮	海	菜	金	蟹	友	天	に	初	山椒	桑		
シテヤル	してやる	2	56	16	6	8	19	1	2	27	8	8	11	14	27	1	206	291
	しておやり	-	-	1	-	-	-	6	-	1	-	-	-	4	-	-	12	
	してあげる	-	15	15	4	4	2	4	1	-	1	-	-	2	-	20	68	
	しておあげ	-	-	-	-	-	-	-	-	-	-	1	-	1	-	3	5	
	してさしあげる	-	-	-	-	-	-	-	-	-	-	-	-	-	-	-	0	
シテモラウ	してもら	3	7	4	8	17	8	-	1	12	9	5	6	12	11	15	118	147
	しておもらい	-	-	-	1	-	-	-	-	-	-	-	-	-	-	2	3	
	していただく	-	1	2	-	-	-	-	-	-	2	4	4	4	1	8	26	
	お~いただく	-	-	-	-	-	-	-	-	-	-	-	-	-	-	-	0	
シテクレル	してくれる	15	33	24	15	35	18	13	24	16	56	21	34	7	19	28	358	611
	しておくれ	-	3	7	5	-	1	1	2	-	-	-	16	12	-	-	47	
	してくださる	-	3	9	16	6	2	1	16	1	9	8	37	21	4	50	183	
	お~くださる	-	-	-	-	-	-	-	1	-	1	7	-	-	-	-	9	
	してちょうだい	-	3	9	-	-	-	-	-	-	1	-	-	1	-	-	14	
계		20	121	87	55	70	50	26	47	57	87	54	108	78	62	127	1049	1049

총 1049회에 이르며, 「シテヤル」는 291회, 「シテモ라ウ」는 147, 「シテクレル」는 611회에 이른다.

4.2.Ⅱ기 (1930년 전후에 출생한 작가에 의한 작품)

다음은 1930년 전후에 출생한 작가 15명의 1960년 전후에 발표한 작품에서 수해표현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앞의 Ⅰ기와 같다.

www.kci.go.kr
 〈표4〉 Ⅱ기의 수해형식 사용실태

총 831회에 이르며, 「シテヤル」는 146회, 「シテモ라ウ」는 178, 「シテクレル」는 507회에 이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계	계
		挽	末	春	他	金	彼	死	贈	廢	植	歪	象	ボ	再	海		
シ テ ヤ ル	してやる	7	5	11	21	3	-	4	-	18	10	9	7	10	7	10	123	146
	しておやり	-	-	-	-	-	-	-	-	-	-	-	-	-	-	-	0	
	してあげる	3	-	1	1	-	1	-	-	-	-	1	5	5	6	-	23	
	しておあげ	-	-	-	-	-	-	-	-	-	-	-	-	-	-	-	0	
	してさしあげる	-	-	-	-	-	-	-	-	-	-	-	-	-	1	-	1	
シ テ モ ラ ウ	してもら	9	8	7	11	11	4	7	5	14	11	9	6	6	4	10	122	178
	しておもらい	-	-	-	-	-	-	-	-	-	-	-	-	-	-	-	0	
	していただく	1	1	6	4	-	1	1	5	8	-	3	9	10	1	2	52	
	お~いただく	-	-	-	-	-	-	-	-	-	-	1	1	2	-	-	4	
シ テ ク レ ル	してくれる	14	24	20	54	14	9	22	12	39	27	34	37	32	32	12	382	507
	しておくれ	-	-	-	-	-	-	-	-	-	2	-	-	1	1	-	4	
	してくださる	1	5	14	1	2	1	2	4	22	4	4	15	19	3	10	107	
	お~くださる	-	1	-	-	-	2	-	-	-	-	-	3	6	1	-	13	
	してちょうだい	-	-	-	-	-	-	-	-	-	-	-	-	-	1	-	1	
계		35	44	59	92	30	18	36	26	101	54	61	83	92	56	44	831	831

4.3. Ⅲ기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작가에 의한 작품)

다음은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작가 15명의 2000년 이후에 발표한 작품에서 수혜표현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앞의 I, Ⅱ기와 같다.

〈표5〉 Ⅲ기의 수혜형식 사용실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계	계
		火	海	冷	世	手	口	彼	天	蛇	空	Go	雨	川	He	な		
シ テ ヤ ル	してやる	5	6	-	2	12	9	4	2	16	6	14	5	11	-	2	94	122
	しておやり	-	-	-	-	-	-	-	-	-	-	-	-	-	-	-	0	
	してあげる	1	2	4	2	-	1	-	3	-	3	-	2	2	1	7	28	
	しておあげ	-	-	-	-	-	-	-	-	-	-	-	-	-	-	-	0	
	してさしあげる	-	-	-	-	-	-	-	-	-	-	-	-	-	-	-	0	
シ テ モ ラ ウ	してもら	17	5	2	2	21	8	3	8	8	9	1	5	12	8	15	124	133
	しておもらい	-	-	-	-	-	-	-	-	-	-	-	-	-	-	-	0	
	していただく	2	-	-	-	-	-	-	-	-	1	-	6	-	-	-	9	
	お~いただく	-	-	-	-	-	-	-	-	-	-	-	-	-	-	-	0	
シ テ	してくれる	44	16	17	32	58	13	5	42	18	20	17	16	30	16	48	392	475

ク レ ル	しておくれ	-	-	-	-	-	-	-	-	-	-	-	-	-	-	-	0
	してくださる	9	1	1	4	1	4	14	4	2	7	1	9	5	11	2	75
	お~くださる	2	-	-	-	-	-	-	-	-	-	-	1	-	-	-	3
	してちょうだい	-	-	1	-	2	1	1	-	-	-	-	-	-	-	-	5
계	80	29	26	42	94	36	27	59	44	46	33	44	60	34	76	730	730

총 730회에 이르며, 「シテヤル」는 122회, 「シテモ라우」는 133, 「シテクレル」는 475회에 이른다. 5장에서 전체 자료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5. 시기별 수해형식 실태 분석

5.1. 시기별 수해형식의 사용빈도의 변화

전체적으로 수해형식이 1049회→831회→730회로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를 작품별로 보면, I기의 작품에서는 50회 이상 사용된 작품이 12작품이었던 것이, II에서 9작품, 3기에서 5작품으로 줄고 있는 것이다. 이는 I기를 100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II기는 79, III기는 70에 해당하는 양으로, 수해표현의 사용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확연히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은 시대별 사용수를, <표7>은 시대별로 각 수해형식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편의상 ()안에 기준을 나타내는 양을 100으로 보고 (굵은 글씨), 각각 비율을 표기한다.

<표6> 시대별 수해형식의 사용수

	シテヤル	シテクレル	シテモ라우	계
I기	291(100%)	611(100%)	147(100%)	1046(100%)
II기	146(50%)	507(83%)	178(120%)	831(79%)
III기	122(42%)	475(78%)	133(90%)	730(70%)

<표7> 시대별 수해형식의 사용비중

	「シテヤル」	「シテクレル」	「シテモ라우」
I기(1046, 100%)	291(28%)	611(58%)	147(14%)
II기(831, 100%)	146(18%)	507(61%)	178(21%)
III기(730, 100%)	122(17%)	475(65%)	133(18%)

〈표6〉과 같이, 전체 사용수가 291회→146회→122회로 줄어, I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II기 50, III기 42로 급감하고 있다. 작품당 사용수로 보면 19.4회→9.7회→8.1회로 줄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7〉과 같이, 전체 수해표현의 사용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8%→18%→17%로, 전체적인 비중도 줄고 있다. 이는 「シテヤル」가 자칫 남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성이외에도 「シテクレル」나 「シテモ라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점 및 방향성이라는 문법적 기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음은 「シテクレル」를 살펴보자.

전체 사용수가 611회→507회→475회로 줄어, I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II기 83, III기 78로 서서히 줄고 있다. 작품당 사용수로 보면 40.7회→33.8회→31.7회로 줄고 있는 것이다. 단, 사용비중은 58%→61%→65%로, 사용량은 줄고 있지만 세 형식 중 유일하게 비중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シテモ라우」를 살펴보자.

전체 사용수가 147회→178회→133회로 완만하게 늘다가 다시 줄고 있다. 이는 I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II기 120, III기 90에 해당한다. 작품당 사용수로 보면 9.8회→11.9회→8.9회를 나타내고 있다.

시대별 전체비중도 14%→21%→19%로, II기보다는 낮지만, I기에 비해 사용비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 「シテモ라우」에 대하여는 宮地(1975)에서 현대어에서 사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유로 「シテモ라우」가 동작과 사건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 이와 관련된 主體와 客體의 人間關係를 중심으로 수해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 본고의 조사대로라면, 20세기 중반에 비해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シテモ라우」의 사용경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여기서, 앞서 3-2에서 지적한 대로, ‘수해’의 의미가 약화·소멸되고 있는 행위요구표현에 사용된 「シテクレル」의 사용 예를 제외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자. 〈표6〉과 비교 바란다(5-3참조).

〈표8〉 시대별 수해형식의 사용 비중(행위요구표현에 사용된 「シテクレル」 제외)

	「シテヤル」	「シテクレル」	「シテモ라우」
I기(837, 100%)	291(35%)	399(48%)	147(18%)
II기(740, 100%)	146(20%)	416(56%)	178(24%)
III기(576, 100%)	122(21%)	321(56%)	133(23%)

즉, 행위요구표현을 제외한 경우에도, 「シテクレル」의 사용수는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인 경향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여전히 「シテクレル」의 사용수가 많으며, 사용비중도 증가추세에 있고, 「シテヤル」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シテモ라우」는 증가는 주춤한 상태이지만 「シテヤル」보다 사용량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경의형식의 사용실태의 변화

〈표3〉 ~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경의형식의 분화의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I기에서 작품당 6.7종의 수혜형식이 사용되던 것이, II기에는 6.1종, III기에는 5.7종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I기에서는 「してやる」와 「してあげる」, 「してくれる」 「してくださる」, 「してもら」 「していただく」가 다양하게 선택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しておやり~」류도 5종에 걸쳐 67예나 사용되고 있다. 다음 예19)와 같이 수혜형식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제삼자와 자신에게 미치는 '수혜'를 이른바 존경어와 겸양어를 사용하였고, 예20)에서는 제삼자에게 미치는 수혜를 존경어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19) さあ、早くお帰りになって、その人と結婚しておあげ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わ。(天, I기)

20) 青木さんは亡くなられたこの主人によくしておもらいになった方で、(桑, I기)

「してくださる」 「お~くださる」의 경우에도 192예(183예, 9예)나 사용되었다. 참고로, 이중 「してください」와 같이 행위요구표현에 사용된 92개의 예를 제외하면 100개의 예가 사용되었다. 그밖에 「していただく」 「お(ご)~いただく」 등도 35예정도 사용되었다.

II기에서는 「しておやり~」류가 「しておくれ~」에 한하여 4예 나타난 것에 그쳤고, III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してくださる」 「お~くださる」도 120(107,13)예로 줄면서, 행위요구표현에 사용된 예를 제외하면, 50예가 사용되었다. 반면, 「していただく」 「お~いただく」와 같은 경의형식의 사용 예는 34예에서 60예로 늘은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이는 5-1에서 다룬 대로 「シテモラウ」의 수적 증가에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III기에서는 「してくださる」 「お~くださる」가 73개로 현저히 줄었고 「お~くださる」 3예를 제외하면 70예 모두 행위요구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더불어 「していただく」 「お~いただく」와 같은 경의형식도 7예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즉, 「してくださる」 「お~くださる」는 I기에서 예21)과 같이, 「してくれる」와 '경의'라는 점에서 구분 사용되던 것이 둔화되고 있으며, III기에서는 예22)와 같이 주로 행위요구표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姉さん。どうしたのです。それはあなたが一しょに山へ来て下さるのは、わたしも嬉しいが
(山, I기)

22) お困りのことがあったら、いつでも訪ねて来てください。」(川, III기)

또한, 「してさしあげる」형 또한, 소멸의 위기에 있다. II기에서 1회의 사용예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어교육의 학습항목에서 제외해도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23) 「期限もお約束しますわ。三ヶ月と申し上げたいところなんですけど、余裕をとって六ヶ月待っていただければ、確実にやりとげてさしあげます」 (ボ, II기)

5.3. 행위요구표현의 사용실태 및 수혜의 의미변화

먼저, 「してくれる」가 행위요구표현에 사용된 예를 시기별로 보면, 212회→191회→153회로 전체수를 감안할 때, 20.2%→23%→21%로 시기별로 사용비율은 유사하다. 단, 5-2에서 지적한대로, 행위요구표현도 I기에서는 「してくれ」「してください」는 물론, 「お~ください」「しておくれ」 등의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II기, III기에 이르면서 점점 형식의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I기의 요구표현에는 '수혜'라는 의미가 남아있어, 수혜의 의미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최근과 확연히 비교된다. 그 근거로, 장면이나 상대에 따라 10종 이상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의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 조사의 사용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후, II기, III기에 이르면서 「してください」「してくれ」로 단순화되고 있다. 특히, 「しておやり~」류의 사용례도 II기에서 「しておくれ~」가 4예가 사용되는데 그쳤고, III기에서는 전혀 사용예가 없다.

더불어, I기에서는 수혜형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양한 행위요구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II기, III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구별도 점점 단순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I기의 『初すがた』와 III기의 『Hero』에서의 예이다.

- 『初すがた』: ひきこめ!, お云ひよ, お出なさいよ, してご覧なさい, してお出で, 気をつけたまへ, 寄ってよ 등 10종
- 『Hero』: 黙ってる!, 落ちついて, ちょっと待ってよ 등 3종

5.4. 「させてくれる」「させてもらう」의 사용실태

다음과 같은 예이다. 다음 <표9>와 같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단, 「させてくれる」는 예 24)와 같이 주로 행위요구표현에 사용되고 있다.

- 24) 「そうだ。まず線香をあげさせてください。それが先ですよ。」 (火, III기)

- 25) たぶんこの家の名義は婆さんになってるはずだからな。いわば息子一家は住まわせてもらっている立場だ。(手, III기)

〈표9〉 시기별 「させてくれる」「させてもらう」의 사용변화

	I기(1049회)	II기(831회)	III기(730회)	계(2610회)
させてもらう	1	7	13	21
させていただく	1	4	4	9
させてくれる	6	11	13	30
させてくださる	0	3	5	8
계	8 (0.8%)	25 (3%)	35 (4.8%)	68 (2.6%)

다만, 8회→25회→35회로 미세하지만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 해석할 수 있다. 특히, 「させてくれる」와 더불어, 「させてもらう」와 같은 정중표현의 증가추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앞으로의 연구로 삼겠다.

5.5. 비수해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이른바 비수해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의 경우, 사용예가 줄고 있으나 총 104개로 전체의 4%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각 수해형식별로 정리하되, 시대별 사용 예 및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10〉 시기별 비수해적 의미를 나타내는 예의 사용변화

	I기(1049회)	II기(831회)	III기(730회)	계(2610회)
シテヤル	44	28	19	91
シテモラウ	3	-	1	4
シテクレル	3	2	4	9
계	50 (4.8%)	30 (3.6%)	24 (3.3%)	104 (4.0%)

5.6. 二重으로 수해형식이 사용된 경우

사용수는 7회→3회→6회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참고로 「してやってくれる」형이 11개, 「してやってもらう」형이 5회 사용되었다. 이중 13예가 의뢰, 희망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어의 수해형식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6) あの人はあなたの意志のとおりにしようと言っているのですよ、逢ってやってください。(楯, II기)

27) それから雨森に会ってやっていただきたいです。(象, II기)

6.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이상, 근·현대소설 속에서 「シテヤル」 「シテクレル」 「シテモラウ」의 사용빈도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고 있다는 사실과 각 수해형식의 사용 비중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래 다양한 수해형식이 선택 사용되던 것이 간결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의 표현의 구별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는 현대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성원의 의식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흐름분석에 주력하였지만, 앞으로 개별 예문 분석을 통해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수해형식의 사용은 ‘수해’라는 문법적 의미와 더불어 ‘시점’ 및 ‘방향성’이라는 문법적 기능에 의한 것이므로, 주어가 동양주이면서 수해자가 1인칭인 경우와 ‘수해’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행위요구표현, 비수해용법, 그리고 이중으로 수해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도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나, 시기 별로 비중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させてくれる」 「させてもらう」 등에 있어서는 미약하지만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현대경어표현의 대체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교육에서 한국인학습자의 「シテヤル」의 남용이 지적되고 있는 이때, 본고에서 다룬 사용양상의 변화—「シテヤル」의 두드러진 감소 등—및 전체비중은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덧붙여 「してさしあげる」는 전체 조사대상에서 1예밖에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일본어교육에서 제외해도 되는 시점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과제로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수해표현의 문법적 기능에 있어 허용 범위 등을 세 대별 앙케트조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소설자료의 문제점을 검증·보완하기 위해, 일반인의 서술 자료라 할 수 있는 신문의 독자투고란을 조사하여 본고의 논고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소규모의 조사이지만,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문법형식의 선택에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 1보를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pp.123-129
- 김미영(1998) 『국어용언의 접어화』 한국문화사, pp.176-186
-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역락, pp.133-149, pp.199-208
- 손세모돌(1993)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pp.214-228
- 李美淑(2007) 『韓・日兩語對照研究の方法論再考—してくるを例にして』 『日本語学研究』 19, 韓国日本語学会
- 井出祥子(1997) 「視点とモダリティの言語行動」, 田窪行則編, 『視点と言語行動』 くろしお出版
- 林八竜(1980) 「日本語・韓国語の受給表現の対照研究」 『日本語教育』 40, 日本語教育学会
- 奥田靖雄(1985) 『ことばの研究・序説』 むぎ書房
- 奥津敬一郎(1979) 「日本語の授受動詞構文」 『人文学報』 132, 東京都立大学
- _____ (1983) 「授受表現の対照研究—日・朝・中・英の比較—」 『日本語学』 2-4, [明治書院]
- 小泉保(1993) 『日本語教師のための言語学入門』 大修館書店
- 国立国語研究所(2006) 『言語行動における「配慮」の諸相』 くろしお出版
- 門脇誠一(1994) 「日・韓語対照研究:授受動詞の補助動詞の用法を中心に」 『北海道大学留学生センター年報』 2
- 久野暲(1978) 『談話の分析』 大修館書店
- 佐々木倫子(2005) 「言語習得・教授法」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pp.679-680
- 新屋映子他(2003) 『日本語運用文法』 凡人社, pp.196-197
- 真田信治(1990) 「世代とことば」 『日本語学』 4月号, 明治書院
- _____ (2004) 「言語と社会」 『日本語教師養成シリーズ1 文化・社会・地域』 凡人社, pp.81-120
- 鈴木重幸(1972) 『日本語の文法・形態論』 むぎ書房
- 泉子・K・メイナード(2005) 『談話表現』 くろしお出版, pp.1-32
- 中井精一(2005) 『社会言語学のしくみ』 KENKYUSYA
- 仁田義雄(1991)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 ひつじ書房
-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3) 『現代日本語文法 4』 くろしお出版, pp.66-81
- 町博光(2006) 『講座・日本語教育学』 2,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宮地裕(1975) 「『やる・くれる・もらう』の発達の意味について」 『鈴木知太郎古稀記念国文学論攷』 桜楓社
- 守屋三千代(1995) 「「動詞テ形」の連用機能と末尾動詞との相関」 『日本語日本文学』 7, 創価大学日本語日本文学会
- 森田良行(2006) 『話者の視点で作る日本語』 ひつじ書房, pp.204-212
- 藤原与一(1990) 「言語と世代を考える」 『日本語学』 4月号, 明治書院
- 韓京娥(2008) 「日本語の「～てあげる・くれる」と韓国語の「-아/어 주다-a/ecweta」の意味機能」 『日本語教育』 136, 日本語教育学会
- 黄順花(1996) 「日本語のシテヤル・シテクレル—日本語と韓国語」 『国文学解釈と鑑賞』 61-7, 至文堂
- 許明子(2000) 「テモラウ文と受身文の関係について」 『日本語教育』 105, 日本語教育学会
- 堀口順子(1984) 「授受表現にかかわる誤りの分析」 『日本語教育』 52, 日本語教育学会
- 古川俊雄(1995) 「日本語の授受表現「くれる」「やる」の史的変遷」 広島大学教育学部紀要第2部 44
- _____ (1996) 「日本語の授受表現「下さる」の歴史の変遷」 広島大学教育学部紀要第2部 45

- 山田敏弘(2004)『日本語のベネファクティブー「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の文法』明治書院, pp.1-55
- 山本裕子(2002)「「してくれる」の機能について」『言語と文化』3, 名古屋大学
- 山橋幸子(1999)「「てくれる」の意味機能」『日本語教育』103, 日本語教育学会
- 尹喜貞(2006)「授受補助動詞の習得に日本語能力、及び学習環境が与える影響」『日本語教育』130, 日本語教育学会
- 由井紀久子(1999)「日本語動詞における意味の抽象化過程の研究」『大阪大学文学部紀要』第37巻
- Bernard Spolsky(1998) Sociolinguistic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사회언어학, 김재원의역 2001, 박이정)

〈 要 旨 〉

社会構成員の意識の変化が授受形式の選択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

本稿では時代的背景による社会構成員の意識の変化が授受形式「シテヤル」「シテクレル」「シテモラウ」の選択に及ぼす影響を探るため、近・現代小説が登場した19世紀末から最近までを3期に分けて、作家の世代、作品の発表時期、量などを考慮して、それぞれ15作品を選定し、使用様相を調べたものである。宮地(1975)では、授受形式は古代敬語から近代敬語への変化に対応するもので、敬語の単純化を補う形で発達した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ているが、本稿はまさにその後の変化を追跡したものである。

結論を先取りして言えば、授受形式の使用数、各授受形式の使用比重及び使用様相において大きな変化が表われている。中でも「シテヤル」は使用数も比重も顕著に減ってきている。一方「シテクレル」は全体の数は減っているが、三つの形式の中で一番多く使われていて、比重も増えている。このことは「方向性」という文法的な機能との関連が考えられるが、時代による特徴は見られなかった。最後に、「シテモラウ」は一時数も比重も増えていたが、最近再び減少の兆候が見えはじめています。今後の推移が注目される。

一方、授受形式は従来、敬意と関わって多様に選択されてきているが、単純化が進み、敬意の意識の鈍化を見せている。このような一連の変化は社会構成員の意識の変化と深く関わっていると見られる。本稿ではその初めての段階で、全体的な傾向に注目したが、今後個別例文分析を通して論証していきたい。

他に、文法的機能、行為要求表現、非恩恵用法等についてもデータを取ったが、論旨を逆らう特徴は見られなかった。

日本語教育では韓国人学習者の「シテヤル」の濫用等が指摘されているが、まさに本稿での分析結果—「シテヤル」が減っている等—は示唆する所がある。なお、「してさしあげる」の使用例は1例しか見当たらなかったため、日本語教育で除外する時点ではないかと提案したい。以上、本稿は小規模の調査ではあるが、社会構成員の意識の変化が文法形式の選択に変化をもたらすという一つの可能性を提示したところで意義をおきたい。

■ 이미숙(李美淑)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lms@mju.ac.kr

- 投稿日：2009年 9月 30日
- 審査開始：2009年 11月 18日
- 審査完了：2009年 12月 4日
- 掲載確定：2009年 12月 7日